목포 정광정혜원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청 8건 예고 고시 망우 유공자 묘역도 포함



문화재 등록이 예고된 목포 정광정혜원.

문화재청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목포 정광정혜원 등 6건과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 등 항일독립 문화유산 2건 등 총 8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8월 8일 밝혔다.

문화재 등록 예고된 목포 정광정혜원은 1918년 세워진 사찰로 불당과 요사채가 장방형(사각형) 중정을 중심으로 한 건물 내에서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일본식 사찰의 독특한 평면구조와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은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오세창(吳世昌, 1864~1953), 문일평(文一平, 1888~1939), 방정환(方定煥, 1899~1931), 오기만(吳基萬, 1905~1937), 서광조(徐光朝, 1897~1972), 서동일(徐東日, 1893~1966), 오재영(吳哉泳, 1897~1948), 유상규(劉相奎, 1897~1936) 등 여덟 명의 독립지사가 모셔진 역사적인 곳이다. 인근에는 2012년 문화재로 등록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묘소가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 계승과 역사적 교훈의 가치가 담긴 역사적 장소로 판단된다는 평가다.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은 을사늑약(1905년) 이후 충청남도 해안지역에서 의병들이 연합하여 소난지도에서 전개된 항일 의병전쟁의 처절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상 도서를 근거지로 항일투쟁을 벌인 곳이다.

문화재청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항일독립 문화유산의 적극적 발굴과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여 독립운동과 조국 광복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된 8건은 앞으로 30일간의 등록 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무구정광 中 유물 주장, 반박 증거 나왔다

송일기 중앙대 교수, 불복장 국제 세미나서

8세기 後 간행 없단 이유로
무구정광 '中→신라' 주장은
동북공정에 이은 '출판공정'

개운사 아미타불 불복장서
9세기 경전 발견 '공백 無'

경주 불국사 3층석탑(석가탑) 사리공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이하 무구정광)〉에 대해 학계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 중인 세계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과 달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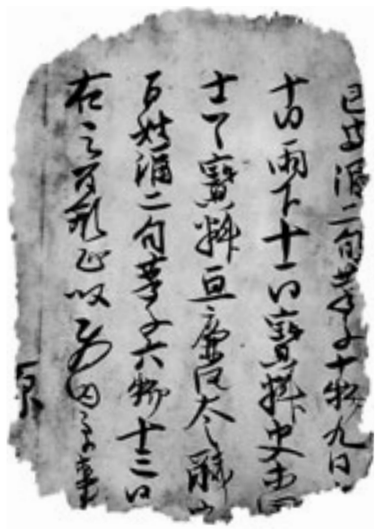
이유는 중국에서 〈무구정광〉이 중국서 간행돼 신라로 전래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

송일기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8월 11~12일 이화여대 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이화여대 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불복장 국제학술대회'에서 최근 불복장 전적 수습 사례를 분석하고 중국 측 주장을 반박할 증거들을 제시했다.

현재 중국이 '〈무구정광〉 중국 제작설'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구정광〉의 간기가 없고, 이후 300년 간 새로운 인쇄물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1995년 안암동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불복장 유물에서 나온 전적류를 중국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당시 개운사 아미타불 복장물에서는 전적류 28점, 문서류 13점이 수습됐다. 이 중 전적류는 조선시대 목판본 4종 6책을 제외한 나머지 22점은 모두 통일신라부터 고려 초기에 간사(刊寫)된 경전이다.



국보 제126호 불국사 3층석탑 사리장엄구 중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일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이지만, 중국 측이 자신들이 제작해 신라로 전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송일기 교수는 개운사 불복장 전적들의 간행 시기를 예로 들며 이를 반박했다.

또한, 22점의 경전 중 20점은 모두 〈삼본화엄경〉으로 현재까지 소개된 단일 불상의 복장 유물 중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개운사 복장본 〈화엄경〉 20점 중 최소 4점 이상은 신라 하대에 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 국보급 전적 문화재이며, 나머지도 고려 초기에 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중국 측의 억지 주장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인쇄 실물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측의 〈무구정광〉 제작 주장은 영토 문제인 동북공정에 이은 출판공정"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출판공정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개운사 불상 복장물인 〈화엄경〉 4종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8세기에 간행된 최고(最古)의 목판인쇄물 이후 2~3세기 공백을 보완할 결정적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는 국내외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제임스 롭슨(James Robson) 하버드대 교수는 '불교 성상 뒤집어보기: 불상의 내용물은 왜 중요한가'는 기조강연에서 불상 안에 다양한 성물을 안치하는 불교전통의 중요성과 이러한 전통에 대해 학자들의 연구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은우 동아대 교수와 이승혜 삼성미술관 리움 책임연구원은 한국불복장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고, 강희정 서강대 교수는 불상을 단순한 조각에서 생명력을 가진 예배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복장의례의 의의를 발표했다. 이용윤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장은 불화 복장 의례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제시했다.

해버포드대 행크 글래스만(Hank Glassman), 오레곤대 아키코 월리(Akiko Walley) 교수 등 해외 초청 학자들은 일본 밀교와 도다이지(東大寺) 등의 복장유물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한국 학자와 연구자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불교와 동아시아의 종교들' 국제 인문학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참여 학자들은 학회 이후 수덕사, 송광사, 국립중앙박물관 복장 유물을 조사했다.

신성민 기자

불자 지성들, 전환기 포교전략 논한다

교불련, 17~18일 진각종 총인원서 교수불자대회

종단별 포교 전략 등 제시
행자 교육 · 4차 산업 다뤄
대학불교네트워크 논의도

불자 인구 300만 명 감소로 한국불교는 위기를 맞았다.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불자 지성인들이 모였다.

불자 교수들의 모임인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각종 총인원서 '전환기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교수불자대회는 기조 강연과 6개 분과 발표로 나눠 진행되며, 특별 라운드 테이블 토의도 펼쳐진다. 기조 강연은 박광서 서강대 교수가 맡았다.

전환기 포교 전략 분과 회의에서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전환기 포교 전략이 제안된다. 발표자로는 김은영(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배성월(중부대), 고우익(금강승가대), 성제정사(위덕대) 등이 나선다.

또한 전환기 한국불교 의제를 통해서는 △이희재(광주대)의 '전통 행자교육에서 본 세대간 소통의 문제' △백도수(능인불교대학원대학)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법방안 고찰' △마성 스님(동국대)의 '불교지도자의 덕목과 리더십'이 각각 발표된다.

이와 함께 교불련은 라운드 테이블 논의를 통해 '대학불교네트워크 창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발제는 심익섭 교불련 회장이 진행한다.

또한, 내년 교불련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대회, 출판사업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심익섭 회장은 "불자 인구 300만 명 감소 등 위기 상황인 한국불교의 실태를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주제를 마련했다"면서 "또한 '대학불교네트워크' 창립 논의를 통해 대학 포교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하계 불교계 학술지 발간 잇달아

대각사상硏 〈대각사상〉 · 정토학회 〈정토학연구〉



하계를 맞아 불교 주요 학회 발행 학술지들이 잇달아 발간되고 있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대각사상〉 27집을 발간했다. 특집 논문으로는 백용성 사상의 재인식을 주제로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경위와 성격(이재수) △〈백용성 대종사 총서〉 수록 자료 조사기(한상길) △백용성 대종사의 화엄과 선(영석 스님) △백용성의 〈금강경〉 이해와 공관(김호귀) △백용성 만일염불회의 전개와 성격(김광식) △백용성의 참선 대중화운동과 부인선원(조승미) 등의 논문들이 수록됐다. 또한 기고 논문으로는 탄호 스님의 '무아 상륜의 생애와 수행'이 소개됐다.

한국정토학회(회장 정인)는 〈정토학연구〉27집을 최근 내놨다. 특집 논문으로는 승보신앙의 재조명을 주제로 △삼보와 승보신앙의 소고(정인 스님) △정토신행에 드러난 조사신앙(법상 스님) △선종에서 조사신앙의 유형과 특징(김호귀) △조선시대 삼화상의 위상과 추념(황인규)이 발표됐다.

기고 논문으로는 △염불선과 선정계위-청화 스님의 염불선 위차 사상과 관련한 비판적 검토(조준호) △미륵 명화와 미래불로서의 사상적 기반(박민현) △영산재 문화콘텐츠화의 전개 양상과 과제(손인애) △조선후기 불교 장엄과 의례에 수용된 정토사상(보운 스님) 등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가야불교사 재조명 본격 시작되나

동국대 세불연, 30일 학술대회

문재인 정부가 밝힌 가야사 복원과 관련해 불교계에서도 가야불교사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처음 열린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 이하 동국대 세불연)는 오는 8월 3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가야사와 가야불교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가야 명칭의 어원과 가야불교의 서원'을, 남재우 창원대 사학과 교수가 '사국시대 가야의 위상과 가야사의 지위'를, 이영식 인제대 고고학과 교수가 '가야사와 고고학 자료의 발굴 현황'을 발표한다.

또한 최경아 동국대 불교학부 외래교수가 '남아시아 불교와 가야불교의 접점'을, 정진원 동국대 세불연 연구교수 '가야불교 인물의 발굴과 활동 분석'을, 김복순 동국대 국사학과 교수의 '가야불교와 신라불교의 특성과 차이'를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정기선 동국대 세불연 연구원, 김세기 대구한의대 명예교수,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 등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